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초선의원들, 의정활동 위한 열기가 뜨겁다

전문의원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조례안 심사 특강
받는 열공 분위기 조성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별관2층 접견실에서 장동우 부의장의 건의로 제7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명숙·김영준·유인애·이정식 의원과 강대형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 지용한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활동 중 조례를 심사하게 되고,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3분야에 대해 함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용한 전문위원의 ▲자치법규 개요에 대해 형식, 제정근거, 효력범위, 조례의 의의,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법령의 범위안, 소관사무의 범위 안,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의 법률위임)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 방식, 구성 요소, 약칭 사용, 조례의



▲ 강북구의회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열공 장면.

제정·개정 절차(의원 발의안) ▲조례안 심사 기법에 대하여 시책과 제도의 심사, 시행에는 예산이 수반, 벤치마킹 기법 활용, 조례안의 유형에 따른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약 1시간 30분간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초선의원들의 열띤 학습 분위기 속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질문을 통해 바로바로 의문사항에 대해 지용한 전문위원이 다시금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간 중간 적절한 예시를 들어 납득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등 알찬 학습시간이 진행 되었다.

지용한 전문위원은 “아직은 다소 낯설은

감이 있는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함께 학습을 한 초선의원들은 “좀 더 조례의 제정에 대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이번을 기회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례안 심사라는 부분에 있어 『조례는 사업을 하기위한 수단으로서 타당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실효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특정 대상이 특례를 받지 않는가에 대해 꼭 살펴야 한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이날 특강을 마무리 하였다.

이는 제7대 강북구의회 출범 이후, 제2회째로 실시한 초선의원 학습시간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강북구민을 위해 앞장서는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기본 좋은 행보이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의원 조례안 심사에 관한 기법 등 열공

지용한 전문위원 ‘조례의 제·개정 및 조례안 심사’ 강사로 나서



장동우 이장식 김영준 김명숙 유인애 의원이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의 강의를 듣고 있다.

공부하는 의회상 확립에 노력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초의원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책상 앞에 앉았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강북구의회 접견실에서 장동우 이장식 김영준 김명숙 유인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는 다가오는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그 의의, 제정범위와 한계, 조례 제정방식과 구성 요소 및 제정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에 대하여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의 특강으

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지용한 전문위원은 ▲ 자치법규 개요(자치법규의 형식 자치법규의 제정 근거, 자치법규의 효력범위, 조례의 의의,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 조례의 제정·개정(조례의 개정 방식, 조례의 구성요소, 조례의 약칭 사용, 조례의 제정·개정 절차 ▲ 조례의 심사기법(조례안 심사는 기법과 제도의 심사, 조례 시행에는 예산이 수반, 벤치마킹 활용, 조례안 유형에 따른 중점 검토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례는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재원의 종류와 조달 계획 및 시급성과 투

입예산대비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외부 초빙 강사가 아니라 강북구의회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지는 등 강의시간 내내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은 “그 동안 쌓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조례안 심사에 관한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의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들의 격려자 함께 했던 장동우 부의장은 “이번 공부 시간으로 구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구민들이 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초선 의원들은 이번 공부를 통해 제7대 초선의원들은 ‘조례의 제·개정 및 조례안 심사’ 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수준높게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는 7대 의회가 출범한 후 강북구 의회 내에서 2번째로 실시한 학습 간담회로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강북구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일 강북구의회 5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특강을 받고 있다.

제정범위, 제정절차, 심사 기법 등 교육

조례 제·개정관련 특강받으며 ‘열공’

강북구의회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4시 별관 2층 의원접견실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특강을 받으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다가오는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의 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조례의 의의, 제정범위와 한계, 조례 제정방식과 구성요소 및 제정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의 내용을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이 전문 지식을 담아 1시간 30분 동안 알기 쉽게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7대 의회가 출범한 후 강북구의회 내에서 2번째로 실시한 학습간담회로서 “강북구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고 또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꾸준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특강을 펼친 지용한 전문위원은 “이번 특강은 그동안 쌓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조례안 심사에 관한 기법 등을 알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됐다”라며 “특강에 참석한 의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특강에는 장동우 부의장과 이정식·김영준·유인애·김명숙 의원 등 5명의 의원들과 강대형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일부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구의회,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간담회 가져

공부하는 강북구의회상 확립과 초선의원들 의정 활동 열정 확인



▲ 강북구의회는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명의 의원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별관2층 접견실에서 제7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가오는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해 그 의의, 제정범위와 한계, 조례 제정방식과 구성요소 및 제정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에 대해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의 특강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7대 의회가 출범한 후 강북구의회 내에서 2번째로 실시한 학습 간담회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강북구의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

특강을 진행한 지용한 전문위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그동안 쌓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조례안 심사에 관한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의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초선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 의회의 참모습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강북구의회 구의원은 열공중

제7대 조선의원 중심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간담회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별관2층 의원접견실에서 제7대 조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가오는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그 의의, 제정 범위와 한계, 조례 제정방식과 구성요소 및 제정 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에 대하여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의 특강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7대 의회가 출범한 후 강북구 의회 내에서 2번째로 실시한 학습 간담회로서 조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강북구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강을 한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그 동안 쌓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조례안 심사 에 관한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의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조선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 의회의 참모습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열공하는 강북구의회 조선의원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학습간담회’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20일 오후 별관2층 의원접견실에서 제7대 조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동우 부의장, 이정식 의원, 김영준 의원, 김명숙 의원, 유인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가오는 제186회 임시회를 비롯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해 그 의의, 제정범위와 한계, 조례 제정방식과 구성요소 및 제정절차, 조례안 심사 기법 등에 대하여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의 특강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제7대 의회가 출범한 후 강북구의회 내에서 2번째로 실시한 학습간담회로서 조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강북구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강에 나선 강북구의회 지용한 전문위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그 동안 쌓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조례안 심사에 관한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의

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조선의원들은 “구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녹여 내 긍정적

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 의회의 참모습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유영일 기자